생각이 기도일 때 믿음 유지가능"

서 뵌 큰스님

님 (광주 법흥사 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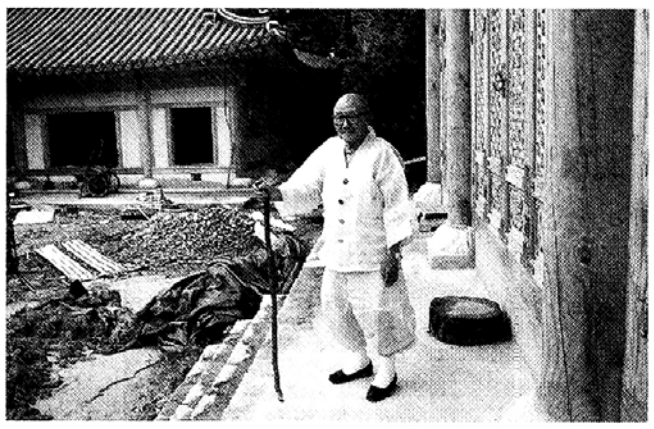
…숲으로 변했다. 시내에서 송정리 광…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파트 단지들은 …한 장치라는 느낌을 준다. 어느 도시나 …그 바깥으로 숲과 산과 들이 있다.
…흥사는 도시의 외곽을 이룬 아파트 단지 …정평한 마을에 위치해 있다. 도심도 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촌마을도 아닌, …을 수 있는 '대기상태'의 마을에 법흥사

…년 12월 23일 전남 해남군 부평면 동…년에 대둔사로 출가했다. 어린 행자…를 주신 은사는 붕명(鵬溟)스님. 대둔…스님에게 경을 배웠고 그곳에서 해…5 때 은사스님의 "마을로 내려간다

…때 대둔사 출가…현재 화엄종 전남 종무원장

…추고 있었다. 절 아래 마을의 이장이 신산스님이란…이었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수행자였다. 신산스님…경찰들과 빈틈없는 관계를 유지해 마을이 안전하…록 하는데 많은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을 지키자…결성된 청년단 단원들 사이에 은밀한 연락이 돌았…'오늘 밤 목포댁의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신…가 올리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나와 대응하라'는…지였다. 목포댁은 마을에서 주막을 하는 여인이었…제 영리한 사람이었다. 주막을 하다보니 밤에 산사…들이 내려와 음식물을 빼앗아 가곤 했다. 목포댁은…들에게 반항할 힘이 없었으므로 조용히 온 그들에…조용히 음식들을 내주곤 했는데, 그날은 지서장과…종의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산사람들이 주막으로 찾아오면 목포댁은 총이 무…우니 치우자며 총을 뒷방으로 치우고 음식을 먹이

기로 했다. 그들이 음식을 먹는 사이에 경찰이 공격을 하고 마을 청년단이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런 작전을 아는 사람은 오직 목포댁과 지서장뿐이었다. 청년단원들이 영문은 모르지만 전갈을 받은 대로 조용히 목포댁의 주막 담벼락에 잠복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탕 탕 탕 총소리가 났고 방안



◇법흥사 중창불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몸소 일을 하는 지운스님.

에서는 "누가 총을 쐈느냐"는 지서장의 고함이 들렸다. 스님과 청년단원들이 신호가 왔다고 판단하고 목포댁의 집으로 일제히 뛰어 드는데, 방문을 박차며 몇 명의 산사람들이 총을 챙기고 나와 뒷마당으로 달아났다. 적을 본 청년단원들은 움찔했지만 기세 좋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추격하는 시늉을 했다. 그들은 뒤 돌아 총을 쏘며 도망갔는데 그 와중에 청년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 그리고 바로 사방은 조용해졌고 총을 맞은 지서장은 어깨 관통상을 입었다. 그날 밤의 작전으로 경찰은 6명의 산사람 중 5명을 체포했다. 지서장은 총상을 입었고 청년단원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

스님은 더욱 굳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부처님과 보살님들, 신장님들의 가피로 절도 탈나지 않고 스님도 무사하리라는 믿음을 항상 채우고 살았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대둔사 아래 마을이 산사람들의 손에 접수됐다. 그들은 절의 책상이며 의자 등을 메고 갔다. 그들이 사무소를 차리고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제법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드디어 목포댁을 불렀다. 목포댁은 그들에게 맞아 죽기 직전의 형상으로 풀려났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결국 스님이 목포댁을 업어다 대둔사로 데리고 갔고 간호해야 했다. 목포댁이 풀려나고 곧바로 신산스님이 불려갔는데 신산스님은 이장 일을 보면서 결찰들의 업무에 많은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매를 맞고 입적하고 말았다.

"참으로 치가 떨리는 시절이었지. 그래도 나는 늘 마음이 든든했어. 부처님의 가피를 믿었으니까. 그 뒤로 늘 생각해 보면 내가 부처님의 가피를 믿지 않았으면 나도 그때 죽었을지 몰라. 그 믿음이 나를 지켜준 것이라 생각되거든.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살면서도 나는 그 믿음을 버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불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스님은 언제나 백중날 천도재 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직접 주관해 봉행한다. 수행자가 된 이후 두 눈으로 죽음을 목도해야 했고 뭇매에 피골이 어스러진 사람을 간호하기도 했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중생의 몸은 수 백 번을 거듭해 죽는 것이야. 그러나 마음은 죽지 않거든. 그걸 불성(佛性)이라고 하지. 그 불성의 자리는 좋은 인연을 맺으면 좋은 형상을 만나고 나쁜 인연을 맺고 그곳에는 죽음이 없느냐"는 한 마디에 뭔가 가슴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부터 제불보살님과 신장님의 외호를 인식하며 굳은 믿음의 자리를 지니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스님은 해남 부평의 칠성암으로 들어가 26년간 정진했다. 칠성암을 태영사라 개명하고 중창불사를 했다. 그 후 지금의 법흥사로 거처를 옮겨 화엄종 전남종무원장을 맡고 있다.

원력 세우고 매진하면 안되는일 없음 알아야

으면 나쁜 형상을 만나게 되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들의 불성이 절집에까지 올 수 있는 날이 백중날이니 그날은 좋은 인연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인 셈이야. 그래서 그날 기도를 특별히 잘해서 많은 중생들이 선한 인연을 맺도록 해야하는 거야."

지운 스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불보살님의 가피와 신장님의 외호가 자기를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일들에 대한 믿음일지라도 진심으로 믿을 때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다.

늘 생각을 흐트리지 않는데서 기도는 비롯되는 것이어서 믿음이 곧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가 곧 믿음으로 이어지면 무슨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지운스님은 특별히 당부했다.

신문 독자들을 위한 법문을 청했을 때 스님은 "법문은 한 소식을 통한 뒤에나 하는 것이지 지금을 할 것이 없어. 그저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배운 것 몇 마디 한 이것이 전부야. **믿는 마음이 절실하면 모든 인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으니 한 생각을 그곳(믿음의 자리)에 집중하라는 것뿐이야.**"

글·사진=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리선행 법사의 스님이야기 홍도스님 (1)

5척 단구. 보통 염주알보다 몇 배나 큰 왕방울 염주를 늘 돌리고 있는 스님. 유난히도 걸음이 빠르고, 마치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해 '방울스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홍도스님.

1935년 태어난 홍도스님은 지난 79년 입적해 44년이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대학생 포교, 군포교 등 한국 현대불교의 포교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스님이다. 입적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스님의 큰 원력과 헌신적인 포교활동,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첨단정보화시대를 자랑하는 오늘날, 한국불교가 시대와 현대인의 근기에 맞게 포교를 잘 해나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선뜻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한 현실이 안타깝기에 '1등 포교사' 홍도스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지도 모른다.

홍도스님은 대구 파계사로 동진출가 했다. 스님은 당시 한국불교계가 정화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자 불교가 젊어져야 하고 운둔에서 벗



어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깊이 하고 도심포교와 청소년포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962년 조계사 중고등 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아 학생지도에 헌신적이었다. 그 시절 지금의 조계종 총무원 청사 자리에 있던, 낡은 합석지붕의 회관이 어찌 그리도 춥던지 겨울에는 법회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는데 일요법회 시간이 되면 홍도스님이 오셔서 총무원에서 조개탄을 몰래 가져다가 난로를 피워주시며 공부하는데 차질이 없게 했다.

광덕스님이 주지로 계시던 봉은사에 계실때는 명성암에 주석하면서 대학생불자들로 '구도부'를 만들어 지도했다. 이때 활동하면 청년불자들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대불련의 활성화를 위해 간사를 동국대 불교학과로 전학시켜 학비지원까지 하며 열정적으로 대불련 지도를 하셨다.

60년대 중반에는 '최초 도심포교당'이라 할 대각포교원을 종로 4가에 있는 빌딩 4층에 개설했다. 3층에 위치한 교회에서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도 흔들림없이 초지일관으로 정기법회와 각종 불교의식을 행하면서 일반시민들을 불교에 이끌었다. 스님은 당시 돈이 조금 모이면 불교의 식집이나 경전번역서를 출판해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포교원에 대각보현회를 구성해 부처님오신날 제등행진에서 대상을 차지할 정도로 신도들을 조직화하였다.

스님은 이후 서울 후암동 뒤쪽 남산 기슭에 보현정사를 건립하고 거리포교를 실천했다. 당시는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던 때였는데도 서울시민의 안녕과 불법 홍포, 특히 군승 창설을 발원하며, 새벽 3시엔 어김없이 목탁을 치며 대대적인 도량석을 시작하였다. 남산에서 출발하여 옛날 KBS방송국- 종로 3가 -중앙고등학교 - 청와대 앞- 옥인동- 서대문- 서울역을 지나 후암동 국방부 청사까지 갔다. 그곳에서 탑돌이 하는 것처럼 몇 바퀴 돌고 다시 절에 돌아오는 코스였다. 절에 돌아오면 새벽 5시가 지나 있었는데 그 일을 매일 되풀이 하였다.

작은 키의 스님이 직경 50cm가 넘는 커다란 목탁을 치면서 걷는데 어찌나 걸음이 빨랐던지 합장만 한 채 뒤따라 걷는 사람들조차 도량석이 끝나고 나면 온 몸이 흥건히 땀으로 젖었다. 가끔씩 다른 절의 대중이나 대불련 학생들이 동참하였는데 처음에는 통행금지 시간이라 제재하던 순경들도 어느새 합장으로 인사하고 한마디씩 덕담을 하거나, 도량석 하는 일행의 모습을 보는

1등 포교사…애칭 '방울스님'

대불련 창립·군포교등 선구자

자체를 즐거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언제나 같은 시각에 울리는 목탁소리를 듣고는 감화되어 따뜻하게 덥힌 우윳잔을 들고 저 멀리서부터 기다리는 여인들의 모습도 늘어났다. 그래서 인왕산 기슭의 옥인동 산속 달동네를 지날 때마다 부처님 재세시 탁발하던 모습을 저절로 떠올린 동참 대중들은 환희심이 가득 피어올라 석가모니 불 정근소리가 더욱 커졌던 기억이 난다.

홍도스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도 거르지 않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서울역에서 용산 한강교를 건너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걸어가서 국가 유공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기원했다.

지금이야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이 거의 사라졌지만 6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이 피폐하고 어려웠던 농촌이나 어촌, 산촌에 가 농사일을 돕거나 야학을 펴고, 또 의료봉사활동을 벌이는 일 등을 많이했다. 그러한 농촌봉사를 홍도스님이 대학생들과 함께 처음 시작했다. 스님은 1964년 여름방학, 광주 지역 대학생들과 섬마을로 찾아가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스님의, 재치 넘치는 불교설화 이야기와 정성이 가득한 봉사 자세 때문에 농민들은, 병을 고쳐주는 의대생들보다도 스님곁에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의대생들도 솔선수범하는 홍도스님의 모습에서 감화를 받고 봉사에 온 힘을 쏟았다.

횡성 대승사 회주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영가천도 「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집안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으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 567-6820, 041)567-6822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쿤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방, 에너지이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펄사)
* 오라진동주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펄사)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펄사)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쇄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쇄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션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톤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르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불교의식(범음·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삼봉불교대학